



동탑산업훈장 수상자  
【기획인터뷰】

# 김명국

삼성전자(주) LCD총괄 상무이사



## “물류대상의 수상은 협력사업의 협업의 성과”

**Q** 먼저, 한국물류대상의 동탑산업훈장을 수상하셨는데, 이에 대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 개인적으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영광은 저희 삼성전자 LCD총괄이 최고경영진 부터 담당자에 이르기까지 LCD의 대형화에 따른 물류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적극적으로 혁신에 참여하여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류혁신을 위해 같이 노력한 관련 협력사 여러분들의 힘이 무엇보다 컸고 이번 성과는 바로 “협업의 성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협력사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영광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저희 삼성전자 LCD 총괄이 추진한 물류혁신 성과가 크게는 국가의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 김명국 상무이사님은 삼성전자 LCD총괄의 자재구매팀장을 역임하고 계신데 자재구매팀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자재구매팀은 LCD 패널 제조에 필요한 모든 원자재를 구매하여 조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품질의 원자재를 좋은 가격에 Speedy하게 제조라인에 공급해 주는 일이 핵심 역할입니다.

**Q** 물류혁신의 개선성으로 총 1,077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금번 물류혁신은 원자재 조달과 관련한 인바운드 물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세가지 축으로 혁신활동을 추진했는데, 첫째, 원자재를 운송하기 위한 물류기기의 표준화 및 프로세스 혁신 둘째, 통합운송 체제 및 정보시스템 구축 셋째, 중국-한국간 수출입 루트 개발이 그것입니다.

이 결과 물류기기 표준화와 프로세스 혁신에서 584억원, 통합운송체제 및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314억원 수입/수출 루트 개발로 인한 효과 179억 등 총 1,077억입니다.

**Q** 세계 최초로 LCD 산업부문에 구매 물류체제를 구축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효율성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LCD패널은 노트북PC용에서 Monitor용을 거쳐 현재는 TV용 패널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패널 크기가 대형화 되고 있다는 의미인데, 모니터용 17" 패널 대비 40" TV용 패널은 면적비로 5.5배가 크며, 52"용은 9.4배에 달합니다.

이에 따라 물류비용도 급격히 늘게 되고, 저희들이 산정한 바로는 '07년이 되면 하루 물동량만 해도 천

안IC에서 탕정(TV용 LCD생산)에 이르는 도로에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물류대란이 일어 날 수도 있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러한 위기의식에서 부터 혁신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2010년 이후까지도 문제없을 정도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갖추었다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물류비용 절감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Speed,표준화,정보공유 등)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Q** 구매 물류 체제를 구축 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사업영위에 있어서 앞으로 시스템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 품목별로, 업체별로 개별화 되어 있던 물류용기(물류기기)를 표준화 시키고, 이에 맞춰 물류 정보시스템과 프로세스를 통합화 시키는 작업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앞으로 개선할 점은, 거래 협력사들의 내부 ERP 운영 고도화를 통해 원소재 업체에서 1차 가공업체, 2차 가공업체,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전체 SCM상의 정보와 물류흐름이 일치하고 Speed를 갖게끔 정보의 통합화를 확대해 나가는 것입니다.

**Q** LCD 원소재 업체를 국내로 유치하면서 국내 LCD 산업은 물론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는데, 외국기업의 국내유치로 얻은 물류부문에서의 효과는 무엇입니까?

▶ '03년부터 정부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외자유치를 적극 추진해서 LCD 관련부문에만 '06년까지 20여

개사의 국내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를 통해 물류비만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업체 국내 유치를 통한 국내 부품산업 경쟁력 제고와 고용확대 등 효과를 합치면 엄청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Q** 앞으로 삼성전자 LCD 총괄의 사업발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앞으로 삼성전자 LCD 총괄은 끊임없는 기술개발과 시장개척을 통해 세계 LCD 산업을 리드하는 1위 업체로서의 위상을 지켜 나갈 것이며, 협력사와의 상생경영을 통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LCD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함께 LCD 물류규모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전문회사와의 공동노력을 통한 끊임없는 물류혁신을 추진하고 당사 부품 협력사의 물류프로세스도 협업을 통해 혁신 추진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국가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합니다.

특히, 물류가 Supply Chain상의 모든 프로세스와 정보시스템이 연계되어야만 가능한 종합운영시스템이라는 점을 감안, 이 분야의 전문가를 육성하는데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며, 나아가 국가 물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産-産 間의 협력뿐만 아니라 官-産 間의 협력관계를 통해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성공 사례를 만들어 내도록 지속적으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류**

